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요청 광주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

뉴스 초점

찬성 -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반대 - "부동산 과열 막아야"

광주시가 정부에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자치구의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해제를 찬성하는 측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부동산 시장의 냉각, 침체한 외곽지역 피해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해제 반대측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높은 집값, 투기 세력 억제 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측에선 광주 5개 자치구가 경계성이 모호한 공동 생활권이라는 점을 들어 특정구만 해제 여부를 건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까지 주택 가격,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광주 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했으며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지정 기준을 다시 심의하게 됨에 따라 내달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 등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내부적으로는 동구와 서구, 북구의 해제 건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조정지역 지정 여부는 '양날의 칼'처럼 장·단점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아파트 등 집값 급등 지역은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부동산 거래 등이 침체한 지역은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

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입장은 표면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관련 입장문을 통해 "아파트 투기나 집값 급등은 엄정하게 대처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라면서도 "실수요자들이 필요할 때 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과도한 규제 역시 경계하며, 부동산 가격이 다른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적정하게 오르는 것이 광주발전이나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발표에 대해 지역내 몇몇 부동산 관련 SNS 등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자체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광주 부동산 시장도 침체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사는 시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집 없는 서민 등을 중심으로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강세인데다, 외부에서 유입된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최근까지 무려 46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2억3498만원)과 비교해 광주 집값은 평균 1135만원(4.83%) 올랐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일부 자치구엔 외부 부동산 투기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광주시가 직접 나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축산물 유통업 관련 12명 코로나 확진

전남도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지인 등 접촉자 다수가 추가로 확진돼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축산물 유통업 관련 12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3명, 기존 확진자 관련 2명 등 모두 17명(누적 272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2697년 확진자와 관련해 가족 4명, 직장 동료 3명, 지인 등 5명이 감염됐다.

북구 각화동에서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2697년 확진자는 지난 17일 기침과 근육통 등 증상을 보였으며, 22일야에 검사를 받아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방역 당국이 밀접 접촉자 43

명을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국은 도축부터 도소매까지 해당 업체와 연계된 동선을 파악해 현장 위험도 평가 등 역학 조사를 하기로 했다. 추가 확진자들이 다수 나오면서 동선도 다양해져 연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남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휴일인 23일 8개 시군에서 모두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여수·순천·광양·함평·해남·영암에서 2명씩, 목포와 나주에서 1명씩 나왔다. 순천 호박나이트 관련 확진자 3명, 타지역 접촉자 등이 포함됐다. 장성군 활동면사무소 직원이 광주에서 확진돼 면사무소가 폐쇄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실수로, 전두환을 안 불렀다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전두환의 5·18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전씨를 고소한 조영대(오른쪽) 신부와 5·18기념재단 관계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판기일은 법원의 소환장 송달 누락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소환장 안 보내 '5월 광주 전두환 재판' 황당하게 날려

조영대 신부·오월단체 “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재판 이뤄질지 의문”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또 다시 미뤄졌다. 이번엔 법원이 피고인인 전씨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41년 전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주범으로 꼽히는 전씨의 5월 광주 법정 출석 여부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임에도, 재판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초보적 실수를 저지른 법원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5월 단계를 중심으로 일각에선 “1심 때는 생중계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번엔 부르지도 않았다”며 “법정에 세우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업무상 누락으로 전씨에게 소환장 송달이 안 됐다”면서 오는 6월 1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려면 피고인에게 재판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야 하는데, 전씨에게 이날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24일에도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상 출석의무가 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씨의 5월 광주 법정 출석은 끝내 무산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무심경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복잡한 법률이론이 아니라 초보적인 재판 진행 절차의 실수 때문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비난이 잇따랐다. 법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세 줄짜리 입장문만 내놓았다.

올 여름 평년보다 덥다 ▶6면

굿모닝 예향-예술공간집·컬렉터 문웅 ▶18·19면

타이거즈 전광대-KIA, 총력전 펼친다 ▶22면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줄 재판부도 알고 있을 텐데, 소환장 송달 절차를 누락한 실수를 했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전씨 재판에 대한 성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호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장은 “지난해 전두환 재판 1심 선고 때는 생중계 요구까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법원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국민 관심과 기대감이 큰 재판의 기본 절차도 행하지 못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판이 이뤄질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씨 재판에 쏟린 국민에게 외견상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전씨를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킨케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링룸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 02-541-9270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